

현대 러시아의 사회계급·계층 구조: 이론과 현실*

최 우 익**

- 개요 -

이 서평 논문은 러시아의 사회학자인 티호노바의 저서 『러시아 사회구조: 이론과 현실(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России: теории и реальность)』의 내용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저서는 러시아 사회구조와 사회계급·계층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현실을 분석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인이 이상적으로 선호하는 사회구조 모델은 중간층이 가장 많고 상층과 하층은 적은 다이아몬드 형이다. 그런데 실제 러시아 사회에서는 하층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러시아인은 생각한다. 생활수준지수를 통해 볼 때 러시아에서 윤택한 국민은 약 40%이며, 윤택하지 못한 국민은 약 60%를 차지한다. 네오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81%가 피착취 계급에 속하고, 네오베버주의 이론에 따르면 60%가 결정권이 없는 러시아인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60% 이상의 러시아인이 수동적이고 빈곤한 집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원 접근방법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러시아 사회는 실행자 계급, 자본가 계급, 제 3의 계급으로 나뉜다. ‘제 3의 계급’은 실행자 계급 중 중간 수준의 자원을 지닌 집단으로서 사실 중간 계층에 해당한다. 티호노바의 자원 접근방법론의 적용은 러시아 사회계층화 요인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고 각 사회계급·계층이 현실에서 어떻게 발생했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규명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 제 어: 계급, 계층, 사회구조, 네오마르크스주의, 네오베버주의,
자원 접근방법론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또한,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62-2009-1-B00005).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교수.

1. 들어가며

러시아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티호노바(Наталья Евгеньевна Тихонова)는 러시아 사회구조와 사회계층화 현상 연구 분야에서 가장 비중 있는 학자 중 한 명이다. 그동안 러시아어로 출판된 그녀의 대표 저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999년, *Факторы социальной стратификации в условиях перехода к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е*
- 2003년, *Феномен гордской бедности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 2007년, *Социальн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Опыт эмпир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 2009년, *Средний класс: теория и реальность*
- 2014년, *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России: теории и реальность*

이 저서들이 출판되는 동안 그녀의 크고 작은 다수의 논문이 학술지들에 게재되었고, 영미권에서도 여러 저서가 출판되었다. 이 글에서는 바로 2014년에 출판된 가장 최근의 저서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녀의 저서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의 연구가 사회계층화 현상의 원인 규명, 빈곤 문제 분석, 중간계급 형성과정 고찰, 여러 경험적 분석 사례 소개 등 러시아 사회계급·계층 문제의 다양한 영역을 차례로 다루어 온 것이라면, 이 글에서 이제 소개할 그녀의 저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집대성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에 출간된 그녀의 저서는 간결한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감을 준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러시아 사회구조: 이론과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이 저서는 러시아 사회구조와 사회계급·계층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현실을 분석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사회구조’란 복잡한 의미를 지닌 용어이며 이것을 간단히 정의하기는 힘들다.¹⁾ 그런데 사회계급·계층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사회구조’는 ‘사회계

1) 사회구조는 사회학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이지만 구체적이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가 있지는 않다(네이버 지식백과: 사회구조(social structure) - 사회학사전, 2000.10.30. 사회문화연구소). 폴란드의 사회학자 S. 오소프스키는 사회구조란 조직·미조직의 두 형태에서의 인간관계, 개인 간·집단 간의 사회적 거리 및 신분·계급의 위계제와 같은 여러 사회적 요소의 체제라고 정의하

급·계층 구조'의 의미로 통한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구조'라는 제목의 이 저서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사회계급·계층 구조를 살펴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티호노바의 저서는 다양한 이론들을 활용해 러시아 사회계급·계층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또한, 러시아의 사회계급·계층 구조가 다른 나라들(특히 독일과 영국)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 규명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티호노바의 2014년 저서를 통해 현대 러시아 사회계급·계층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정리하고 그에 입각해 도출된 다양한 현실 분석 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러 학자의 시각을 비교, 검토하면서 티호노바의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1990년대 사회계급·계층 연구의 등장과 다양한 관점

2014년 티호노바의 저서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현대 러시아의 사회계급·계층 연구가 본격화된 1990년대의 연구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를 배경으로 티호노바의 연구도 본격화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00년대와 2010년대에도 티호노바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사실 티호노바를 러시아 사회계급·계층연구를 가장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연구자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20~30년간 러시아 사회는 매우 심각한 사회변동을 겪었다.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변화의 폭이 꽤 깊어 사실상 러시아에서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계급·계층에 대한 연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기존 사회구조가 바뀐 것은 물론이며 새로운 계급과 계층이 급속히 출현하였고, 과거와 현재의 것들이 뒤섞이며 러시아 사회는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변동이 본격화된 1990년대에 러시아 사회계급·계층에 대한 연구는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의 저명한 사회계급·계층 연구자들을 꼽으면, 고르돈(Л. А. Гордон), 자슬랍스카야(Т. И. Заславская), 립키나(Р. В. Рывкина), 시카라탄(О. И. Шкаратан),

기도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사회구조(social structure, 社會構造) - 두산백과).

라다예프(В. В. Радаев), 벨라예바(Л. А. Беляева), 골렌코바(З. Т. Голенкова), 이기트하난(Е. Д. Игитханян), 라핀(Н. И. Лапин), 스타리코프(Е. Н. Стариков), 티호노바(Н. Е. Тихонова), 체르니시(М. Ф. Черныш)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자슬랍스카야, 저술 작업을 함께 진행한 시카라탄과 라다예프, 그리고 티호노바 등 3자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슬랍스카야(Т. И. Заславская)는 탈 소비에트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층·계층 구조 변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징을 정리했다. 첫째, 사회계층·계층 구조의 형성과 개조 과정이 자율화되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사회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둘째, 교육과 숙련도에 대한 사회적 위신과 힘이 증가했고, 이것은 사회적 지위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셋째, 지역적 공통성이 유지되었던 각 지역에서 이제 다양한 사회적 지역 조직들이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위의 성분에 대한 비교 우위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 소비에트 시대의 사회계층화에서는 권력과 관리 체계의 위치와 연관된 행정적 직위의 범주가 결정적인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소유와 수입의 범주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²⁾

자슬랍스카야의 연구는 전러시아사회여론연구 센터(ВЦИОМ)의 통계와 다양한 경험적 자료에 기초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현대 러시아 사회는 네 개의 기본적인 계층, 즉 중상(верхний средний), 중간(средний), 기본(базовый), 하층(нижний) 계층으로 나뉜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 계층 맨 위에 정치경제 엘리트(политическая 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элита)와 맨 아래에 ‘사회적 밑바닥층(социальное дно)’이 추가되어 모두 여섯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수직적 사회 계급·계층 구조가 제시되었다. 사회계층의 분류를 위해 그녀는 취업 분야, 조직 규모, 직무상의 지위, 교육 수준, 숙련도, 수입 규모 등 10개의 변수를 이용했고, 이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경제적, 권력적(관리적), 사회문화적 잠재력을 측정하면서 계층들을 분류하였다.³⁾

정치경제엘리트와 밑바닥층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4개 계층의 규모만 측정

2) Т. И. Заславская(1996b) “Трансформация социа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уда идет Россия?.. Социальн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ып. 3, М.: Аспект Пресс, С. 18.

3) Т. И. Заславская(1996a) “Стратификац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перемены: мониторинг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 1, С. 7-15.

했을 때 각 계층의 비율은 1995년 말 중상계층이 1.4%, 중간계층이 28.3%, 기본계층이 64.3%, 하계층이 6%이다. 1990년대에 진행된 개혁의 성격에 따라 사회계급·계층 구조의 변화와 흐름의 방향은 분명 시장경제 부문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와 관련한 중상계층과 중간계층의 수가 천천히 증가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본계층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이 계층은 사회적 잠재력이 낮아 새로운 경제 조건에 적응하기 힘들었으며, 결국 이들은 불만 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상황이 더 악화하면 이러한 불만은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⁴⁾

시카라탄(О. И. Шкаратан)과 라다예프(В. В. Радаев)는 러시아 사회계급·계층 구조가 낡은 형태로부터 새로운 형태로 진화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거대 금융자본을 바탕으로 한 중앙권력 구조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간 계층은 아직 사회적으로 미약하다. 또한, 인텔리겐티아는 이제 과거의 지식계급이 아닌 중소기업가들로 변신해 가고 있다. 한편 사적 기업가 계층의 형성은 노동자 계급을 새로운 성격으로 변모시켰다. 즉, 소련 시대의 ‘사회주도 세력’이라는 관제 사이비 계급으로부터 자신의 생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주들과 투쟁하고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피고용 종사자로 노동자 계급은 변모하고 있다. 농민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확대했다. 개인적 부업에 대한 과거의 제약이 사라졌고, 한편 소비자들과 직접 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 기술자 및 비료 생산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이를 통해 자영농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시카라탄과 라다예프는 국가 권력 구조에서의 위치에 따라, 그리고 중앙 집중화된 자원 분배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수준에 따라 개인과 사회 집단 위치가 결정되었던 소비에트 시대의 위계적 사회구조는 시장 개혁 과정에서 문명세계의 주요 형태인 계급적 사회구조로 변했다고 평가한다. 권력 중심의 관계는 이제 사적 소유 중심의 관계로 대체되었다. 기업가적 활동 혹은 적어도 사적 부문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지향성은 특히 젊은 층에서 확고히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사회·경제적 미래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선택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⁵⁾

4) Т. И. Заславская(1996а), 15.

5) В. В. Радаев и О. И. Шкаратан(1996) *Социальн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М.: Аспект Пресс, С. 311-312.

시카라탄과 라다예프의 견해는 다른 학자들에 비해 다소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소비에트 사회를 권력적 지위를 중심으로 한 ‘봉건적 신분사회’의 성격을 지닌 사회로 파악했기 때문에, 오늘날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 하의 ‘자본주의적 계급사회’로 이행하는 모습이 마치 낡은 일보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중앙권력의 강화와 대금융 자본의 구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업가 계층, 노동자, 농민도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시카라탄과 라다예프에게는 문명 세계로의 진입을 예고하는 것처럼 비친다. 이러한 시각은 러시아의 오랜 역사 단계와 소비에트 시대의 특수한 사회적 성격에 초점을 두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티호노바는 소비에트 사회의 조합-신분적 사회구조(корпоративно-сословная 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와 현대 러시아의 새로운 사회구조의 공존 속에서 사회계급-계층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과거의 것’이 ‘현대의 것’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일방적이거나 아무 방해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대응하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이 과정에서 사회구조가 스스로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세밀히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러시아에서 경제 개혁이 진행되자 기존의 조합-신분적 사회구조와 함께 새로운 계급 형태의 사회구조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두 개의 경제 부문, 즉 국영 부문과 사적 부문이 나란히 존재하게 된다. 새로 발생한 사적 부문에서는 시장경제의 지위와 관련된 요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국영 부문에서는 권력 자원과 조합 소속이 종전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개의 부문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통분모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분모는 이제 물질적 부의 수준이다. 물질적 부의 수준에 따라 편성된 사회적 분화의 심화는 바로 과거와 새로운 사회구조의 주요한 차이가 되었다. 이제 소비에트 시대의 계층구조에서보다 오늘날의 사회구조 양극화의 범위가 수직적으로 더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회계층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⁶⁾

사회구조의 변화는 엘리트 집단과 보통의 국민에게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

6) Н. Е. Тихонова(1999) *Факторы социальной стратификации в условиях перехода к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е*, М.: РОССПЭН, С. 36-42.

다. 일부 엘리트 집단에서 권력의 자원은 자본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무일푼인 대중적 국민 집단에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관계와 구조에의 소속이 이제 새로운 사회적 지위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하여 러시아 사회구조의 변동 속에서 일부 국민은 마치 ‘개혁 이전의’ 시기처럼 여전히 사는 반면, 동시에 일부 국민은 개혁에 적응하여 시장경제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능력으로 무장한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주체가 되었다.

사회계급·계층 구성 비율의 변화를 보면 소비에트 사회의 중간 계급은 이제 1/3이 아닌 최대 1/4이 되었으며, 소비에트 사회에서 2/3를 점한 하층 계급은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종전대로 러시아인의 다수를 이루는 ‘기본 계층’이 되었고, 그곳에서 분리된 두 번째 집단은 새로운 ‘하층’ 계층이 되었다.⁷⁾

1990년대에 사회계급·계층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는데, 각 학자는 다양한 관점을 표방하였다. 그러한 관점들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지면에서는 각 연구 관점이 지니는 유용한 측면만 꼽자면, 우선 자슬랍스카야는 풍부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해 상세한 사회구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소비에트 시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경제 영역의 범주에 계속 초점을 두면서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시카라탄과 라다예프는 러시아의 사회구조를 분석하면서 러시아가 지니는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에 주의를 돌릴 것을 환기하고 있다. 경제 개혁 초기의 환상이 깨지고 러시아가 결코 서구식 경제발전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지금, 러시아적 특수성을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티호노바는 일견 절충적 관점을 가졌지만, 사회구조 변화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는 점이 그녀 연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1990년대 티호노바의 러시아 사회계급·계층 구조 연구의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2000년대를 지나 2010년대 현재까지도 이 연구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7) Н. Е. Тихонова(1999), 273-275.

3. 2000년대 다양한 사회계급·계층 이론을 통해 본 러시아 사회

동일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각 이론의 관점에 따라 사회계급·계층 구조의 모습은 달라지고 분석 내용도 달라진다. 러시아의 사회계급·계층 이론이 1990년대에는 아무래도 거시적 맥락에서 새로운 사회구조 발생의 맥락이나 특성, 그리고 미래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계급·계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조사와 분석에 더욱 초점을 두게 된다. 본 장에서는 티호노바가 다양한 기준과 이론을 동원하여 러시아 사회 계급·계층 구조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분석하는지, 그리고 과연 러시아는 어떠한 성격의 사회구조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 사회의 계급·계층 구조를 분석할 때 가장 단순한 방법의 하나는 그 사회를 상, 중, 하층으로 분류해 보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을 응답자의 주관적 의식에 기초해 사회계층화 정도를 파악할 때 그것은 더 간편하고 단순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주관적 의식에 기초하여 사회계층화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은 학문적 영역은 물론 정부, 기업, 언론계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각 개인의 생각은 물론 해당 사회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행복 지수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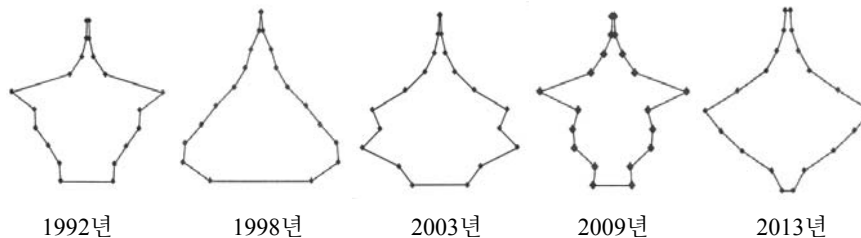
티호노바는 주관적 의식에 기초하여 러시아인의 사회계급·계층 구조에 대한 생각을 여러 차원에서 조사했는데, 이러한 조사들을 통해 국민이 실제로 여기는 자기 사회의 사회구조 모습뿐 아니라,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회구조 모델까지 그려내고 있다. 2009년에 조사된 러시아인과 독일인의 의식을 비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양 국민 모두 이상적으로 선호하는 사회구조 모델은 중간층이 가장 많고 상층과 하층은 적은 다이아몬드 형이다. 러시아인은 46.2%, 독일 동부인은 54.6%, 서부인은 58.3%가 이 모델을 선호한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모델은 중간층이 가장 적고 상층은 일부 존재하지만, 국민 다수가 하층인 모델이다. 이 모델의 모양을 비유하면 마치 아령처럼 생겼지만, 한쪽 볼은 작고, 다른 한쪽 볼은 큰 비대칭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손잡이 부분이 훌쩍한데, 바로 여기에 중간층이 협소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 국민 모두 이 모델을 선호하는 비율이 2%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나 가장 선호하지 않는 이 모델이 실제로는 러시아 사회구조의 모습이라고 러시아인 다수가 여기고 있다. 즉, 비대칭 아령처럼 러시아의

실제 사회구조 모습이 생겼다고 응답한 비율은 40.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35.0%가 러시아는 피라미드 모양의 사회구조라고 답하였다. 피라미드 모양의 사회구조는 하층이 가장 다수이지만 중간층도 어느 정도 있는 반면, 상층은 피라미드의 뾰족한 꼭대기처럼 소수만 있는 형태이다. 하지만 양자 모두 하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모델이어서 그만큼 러시아인 스스로 자신의 사회가 하층 위주의 사회구조라고 대부분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독일인은 자신의 사회구조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겼다고 답하는 비율(동부인과 서부인 각각 38.6%와 33.8%)이 가장 높았다. 비대칭 아령 모습으로 응답한 비율은 소수인데, 그만큼 자신의 사회에 일정 정도 중간층이 존재한다고 독일인은 생각하는 것이다.⁸⁾

티호노바는 주관적 계층귀속 의식에 기초하여 드러나는 러시아 사회구조의 모습을 시대별로 그려내고 있다. 이것은 사회를 10등분 했을 때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응답자가 선택하게 하여 그 응답 내용대로 사회구조를 그린 것이다. 이것을 시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시대별 주관적 계층귀속의식에 기초한 러시아 사회구조의 모습⁹⁾



1992년은 러시아에서 시장개혁이 시작되던 초기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러시아인은 자신을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70여년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나름대로 평등 사회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다는 관념이 이 시점에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과 수년 만에 이 관념은 깨졌다. 게다가 1997년 국가부도 사태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1998년에 조사된 사회구조는 사실상 피라미

8) Н. Е. Тихонова(2014) *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России: теории и реальность*, М.: Новый Хронограф, С. 54.

9) Н. Е. Тихонова(2014), 56-58의 그림들을 일렬로 모음.

드 모습이다. 중간층이 하층으로 몰락하였고, 가장 바닥에 있는 하층 비율도 훨씬 높아졌다. 2000년대에 들어와 중간층의 살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였고, 또 2009년에는 중상층의 비율도 조금 높아졌다. 이것은 러시아 경제가 2000년대 석유와 가스 수출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개인소득도 늘어난 것과 연관이 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중상층의 비율도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중간층의 위치도 다소 하향되었다. 이것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나 2012년 유럽 경제위기 등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 경제가 지속적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주관적 계층귀속의식에 기초한 러시아 사회구조의 모습은 그 시점의 경제사정과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연동되면서 변화된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하층의 비율이 1998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는 별개로 어쨌든 자신을 극빈자라고 생각하는 층의 비율이 꾸준히 낮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관적 계층귀속의식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상대적 비교의식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주관적 의식에 불과하므로 사회구조의 실제 모습과는 동떨어진 것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티호노바는 생활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들을 이용하여 생활수준지수 개념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 실제 사회구조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시도하였다.

물론 이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 한가지로만 사회계급·계층을 분류하려고 해도 과연 얼마의 소득이 상층과 하층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가늠하기 힘들고, 그리고 시대와 지역마다 그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쉽지 않다. 또한, 소득 외에도 예를 들어 교육, 주택, 직업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티호노바는 그동안 발표한 다양한 연구결과 자료들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자신의 ‘생활수준지수(индекс уровня жизни)’ 개념을 고안하기에 이른다. 생활수준지수는 박탈감, 재산, 부동산, 주택, 저축, 문화 수준, 여가 기회 등의 분야에서 세세하게 측정 단위를 설정하여 종합하는 방식으로 얻어진다. 이를 통해 티호노바는 사회구조에 대한 상당히 객관적인 실체의 모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¹⁰⁾

10) 생활수준지수를 고안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Н. Е. Тихонова(2014), 97-116 참조.

<표 1> 생활수준에 따른 러시아인의 사회계급·계층 분류¹¹⁾

계급·계층	2003년	2012년
궁핍 계층(Бедствующие)	29	7
낮은 생활수준 계층(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е)	42	48
중간 생활수준 계층(Среднеобеспеченные)	16	23
생활이 보장된 계층(Обеспеченные)	11	19
높은 생활수준 계층(Высокообеспеченные)	2	3

<표 1>에 따르면 중간계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생활이 보장된 계층’과 ‘중간 생활수준 계층’은 합하여 2003년 27%에서 2012년 42%로 비율이 높아졌다. 이것은 긍정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궁핍 계층의 비율은 약 10년 만에 29%에서 7%로 떨어져 역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하층(낮은 생활수준 계층과 궁핍 계층)의 비율은 2012년 현재 55%로서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러시아인이 원하는 사회구조 모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티호노바는 2000년대 이후 전체적으로 러시아 사회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운택한 국민(благополучное население)은 40%, 운택하지 못한 국민(неблагополучное население)은 60%라고 표현한다.¹²⁾

이렇게 생활수준지수 측정에 따라 사회계급·계층을 분류하는 것은 진일보한 연구방법이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 물론 조사 샘플의 규모를 적어도 수천 개로 늘리고 러시아 지역을 골고루 선택하여 조사할 경우 어느 정도 한 국가를 단위로 한 사회구조의 모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방법도 예를 들어 지역 간, 국가 간, 시대별 비교 연구 등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이 가능해지려면 지역별 샘플의 규모를 더 크게 하고 지역마다 골고루 가중치를 두거나, 국가 간, 시차 간 통일된 조사방법을 엄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생활수준지수 측정처럼 일정 규모의 대상자들을

11) Н. Е. Тихонова(2014), 113. 이 표에서는 엘리트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비율만 산출되었다. 이 표에서 ‘Обеспеченные’는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표현을 찾기 힘들다. 예를 들어 ‘Высокообеспеченные’의 경우 풀어서 표현하면 ‘높은 생활수준이 보장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에서는 간단히 ‘높은 생활수준 계층’이라고 표현하였다. 티호노바는 생활수준지수에서 도출된 이들을 단순히 ‘부유층(богатые)’으로 표현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신이 고안한 ‘생활수준지수’ 개념에서는 이들을 ‘Высокообеспеченные’로 부르도록 제안하고 있다. Н. Е. Тихонова(2014), 118.

12) Н. Е. Тихонова(2014), 160. 티호노바는 이 60%라는 수치가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예고한다.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도하는 방식은 이러한 큰 범위의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단순하게 통계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득수준 통계 자료만을 활용해 사회계급·계층 구조의 경향이나 특성을 추론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한다.¹³⁾

티호노바는 러시아 사회구조 분석을 위해 또한 서구의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라이트(E. O. Wright)의 네오마르크스주의 계급분석 모델과 골드소프(J. H. Goldthorpe)의 네오베버주의 계급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티호노바는 러시아 사회계급·계층 구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라이트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러시아 사회구조를 분석해보면, 2000년대 후반 시점 러시아인의 81%가 피착취 계급(эксплуатируемые)에 속하고, 9%가 착취 계급(эксплуатирующие), 10%가 중간계급에 속한다. 영국의 경우는 각각 55%, 19%, 26%로서 절반 조금 넘는 55%가 피착취 계급인 반면, 러시아는 80%가 넘는 비율이 피착취 계급이어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러시아에서 9%의 착취 계층은 다시 3%의 소유자 집단, 1%의 전문경영인, 5%의 전문감독자로 나뉜다. 여기에는 고전적 의미의 자본가 계급뿐 아니라, 국가 관료(예를 들어 중간 직위의 교통경찰이나 세관원도)도 포함되어 있다.¹⁴⁾

그런데 티호노바는 영국과 러시아의 현실이 다르므로 라이트의 방법론으로 러시아의 사회구조를 그려내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지 일정한 경향성을 추론하거나 비교연구를 하는 정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골드소프 이론은 네오베버주의에 입각해 있다. 그는 개인이 어떠한 생산적 지위의 특성이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유 여부나 노동의 성격 같은 것들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교섭 능력이나 직장에서의 권한 범위와 같은 것들이다. 즉,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 활동에서의 각 개인의 결정 권한이며, 이것에 기초하여 각 사회계급·계층이 분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얻어진 2007년 영국과 2009년 러시아 조사 자료를 비교해 보면, 기업 전체 차원의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비

13) 이러한 연구 사례로는 다음 참조. 최우익(2008) 「러시아 중간계층의 지역별 분포와 양상」, 『슬라브학보』, 제23권 3호, 한국슬라브학회, 449-473쪽; 최우익(2013) 「러시아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시장개혁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특성」, 『동북아시아문화연구』, 제35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319-341쪽.

14) Н. Е. Тихонова(2014), 193-198.

율은 러시아인이 7%, 영국인이 15%로 나타난다. 부분적인 결정권만 있는 근로자 비율은 각각 32%와 45%이다. 자신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근로자 비율은 각각 61%와 40%이다.¹⁵⁾ 여기에서 크든 작든 결정권이 있는 러시아인은 약 40%이며, 전혀 결정권이 없는 비율은 약 60%이다.

관점과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사회를 단순화시켜 상, 중, 하층으로 나눈다고 할 때 앞에서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러시아인의 하층 비율은 약 80%였는데, 네오베버주의 입장에서는 약 60%로 양자의 차이가 있다.¹⁶⁾ 또한, 중간층의 러시아인은 전자가 10%, 후자가 32%로서 역시 차이가 있다. 이처럼 관점의 차이에 따라 현실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다.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 중 또 하나는 바로 중간계층의 문제일 것이다. 2000년대 중간계층에 대한 연구는 러시아 학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즉, 중간계층의 확대와 축소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그 사회가 양호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학자가 러시아 중간계층의 비율 파악에 역점을 두어왔는데, 시대별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98년 러시아 국가부도 사태 당시의 한 연구는 1998년 위기 이전에는 중간계층이 러시아 사회계층에서 25% 정도를 차지했는데 그 후로는 18%로 축소되었다고 추산했다. 그들은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중간계층이 존재하는 것은 이제 사실로서 인정될 수 있지만, 아직 그들은 말 없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렸다.¹⁷⁾ 경제가 아직 덜 회복된 2000년도에 중간계층에 대한 대규모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르면 ‘중심적인’ 중간계층은 양적으로 10%를 채 넘지 못한다고 평가되었다.¹⁸⁾

그런데 2000년대에 러시아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학자들은 중간계층의 성장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2003년 조사에 따르면 하층은 60.2%, 중간계층은 33.9%, 상층은 5.9%로 분석되면서 중간계층의 성장세가 발견되기 시작하였

15) Н. Е. Тихонова(2014), 219.

16) 네오베버주의 입장에서 조사된 ‘결정권이 없는 비율’ 60%라는 수치는 앞에서 언급한 티호노바의 ‘유택하지 못한 국민’ 60%의 수치와 일치한다.

17) М. К. Горшков, Н. Е. Тихонова, и А. Ю. Чепуренко(1999) *Средний класс в современном российском обществе*, М.: РНИСиНП, РОССПЭН, С. 232-237.

18) Т. Малевая(2003) *Средние классы в Росс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ые стратегии*, М.: Теис.

다.19) 더 나아가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주변적인’ 중간계급은 물론 ‘중심적인’ 중간계급만도 25%를 넘으면서 중간계급은 모두 60%에 달한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게다가 이들은 모스크바뿐 아니라 지방 여기저기에서도 발견된다고 보고되었다.2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2000년대 중간계층의 비율은 최대 60%까지 추산되기도 하고, 중심적인 중간계층의 경우에는 25%로 추산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들에는 티호노바가 참여한 경우도 있는데, 연구마다 중간계층의 비율이 달리 나타나곤 한다. 이처럼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에 따라, 그리고 개별 연구자에 따라 러시아 사회계급·계층 구조의 현실은 달리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을 고민하면서 티호노바는 최근 자원 접근방법론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4. 새로운 이론 패러다임으로서의 자원 접근방법론

티호노바는 사회계급·계층구조 분석을 위해 최근 부르디외(P. Bourdieu)와 베커(G. Becker)의 자원 접근방법론을 동원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본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개인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이러한 자원들에 의해 사회에 배치된다. 티호노바는 자원 접근방법론을 네오마르크스주의 이론의 한 줄기로 여긴다. 왜냐하면, 한 사회에서 개인의 위치가 그가 지닌 자원의 동원 가능성으로부터 결정된다는 시각은 결국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티호노바는 이러한 자원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측정한다.

19) Н. Е. Тихонова, Н. М. Давыдова, и И. П. Попова(2004) “Индекс уровня жизни и модель стратификаци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ОЦИС*, № 6, С. 120-130.

20) Е. М. Авраамова(2008) “Средний класс эпохи Путина”, *ОНС*, № 1, С. 28-36. 이 연구에서는 중간계층의 기준으로 물질적 수준, 교육수준, 자기 정체성을 꼽고 있으며, 이 세 요소를 다 갖춘 집단을 중심적 중간계급으로, 이중 한 가지 요소를 갖추었을 경우 주변적 중간계급으로 보고 있다. 2007년 4개 도시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중간계급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2000년에는 이보다 절반 이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С. 28-30).

- 경제적 자원: 돈, 비즈니스, 부동산 등 전통적인 모든 형태 포함
- 숙련도 자원: 교육과 기술 수준
- 사회적 자원: 사회적 관계, 조직
- 권력적 자원: 행정적 자원
- 상징적 자원: 사회적 위신, 지위
- 생리적 자원: 성, 건강, 노동 능력 등

티호노바는 기존에 이루어진 2003년과 2008년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각 분야의 자원을 측정해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해에 47%와 54%의 러시아인이 경제적 자원을 지니지 못했고, 권력적 자원의 경우에는 72%와 61%, 숙련도 자원의 경우에는 39%와 40%, 사회적 자원의 경우에는 37%와 41%, 문화적 자원의 경우에는 59%와 53%의 러시아인이 해당 자원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마다 차이가 있는데, 권력적 자원의 경우에는 약 2/3의 국민이, 나머지 분야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 혹은 절반 남짓의 국민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개선할 만한 지렛대로서의 자원을 지니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²¹⁾

티호노바는 다양한 자원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자원과 권력적 자원의 결합력을 주목하고 있다. 아마 이것은 러시아의 현실을 볼 때 누구라도 이미 알고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일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티호노바는 숙련도 자원이 이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교육을 통해 숙련도 자원을 늘릴 수 있는데, 사실 교육은 사회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통적인 통로였다. 그런데 최근에 부와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교육의 영역까지 독점하는 세태가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즉, 좋은 여건의 교육 환경을 부유층이 독점하면서 그러한 양질의 고등 교육을 받은 자녀들만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즉, 개인 혼자만의 자질로는 교육을 통해 상층에 도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 권력 자원과 함께 교육 자원의 위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삼자가 결합하는 현상이 발견된다고 티호노바는 강조한다.

티호노바는 자원 접근방법론을 동원하여 사회구조를 분석한 결과 결국 세 개의 구체적 집단이 현실에서 드러난다고 언급한다. 첫째는 실행자 계급(класс исполнителей), 둘째는 자본가 계급(класс капиталистов), 그리고 ‘제3의 계급

21) Н. Е. Тихонова(2014) *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России: теории и реальность*, М.: Новый Хронограф, С. 289-318.

(третий класс)’이다. ‘제3의 계급’은 티호노바가 만든 호칭인데, 사실 실행자 계급 중 중간 수준의 자원을 지닌 집단으로서 중간계층에 해당한다. ‘실행자 계급’의 다수는 낮은 수준의 자원을 보유한 하층에 해당하며, ‘자본가 계급’은 높은 수준의 자원을 지닌 집단이자 사실 사회의 지배층에 해당한다.

유감스럽게도 티호노바의 저서 중 자원 접근방법론을 다루는 단원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 연구가 빠져 있다. 아마도 그것은 자원 접근방법론이 복잡한 연구 과정을 거쳐 진행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제시된 이론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자원 접근방법론은 지난 20~30년간 진행된 러시아의 사회변동과 사회계급·계층 구조의 변화 과정을 보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다. 티호노바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현대 러시아의 사회적 불평등 현상은 수세대에 걸쳐 차별화된 자원의 양을 축적한 다양한 집단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논리적 귀결이다. 이러한 차별화된 자원이 자본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계획경제에서는 이들은 일상생활 수준의 차이로만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조건에서 그것들은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그 밖의 무엇으로도 교환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비에트 사회에서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던 집단은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진행할 수 있었고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변신하였다. 그들은 시장경제로의 과도기 속에서 터져 나온 새로운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경제적, 권력적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자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소비에트 시대에 특별한 자원을 지니지 못했던 사람들은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도 기본적으로 자원이 없는 채 살아가게 된 것이다.

티호노바는 자원 접근방법론을 러시아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녀의 사회계급·계층 구조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며 현재의 연구 성과도 아직 최종적인 내용이 아니다. 아마 티호노바는 스스로에게도 계속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자원 접근방법론이든 아니면 새로운 방법론이든 창의적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 최우익(2008) 「러시아 중간계층의 지역별 분포와 양상」, 『슬라브학보』, 제23권 3호, 한국슬라브학회, 449-473쪽.
- _____ (2013) 「러시아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시장개혁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특성」, 『동북아문화연구』, 제35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319-341쪽.
- Авраамова, Е. М.(2008) “Средний класс эпохи Путина”, *ОНС*, № 1, С. 28-36.
- Горшков, М. К., Н. Е. Тихонова, и А. Ю. Чепуренко(1999) *Средний класс в современном российском обществе*, М.: РНИСиНП, РОССПЭН.
- Заславская, Т. И.(1996а) “Стратификац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перемены: мониторинг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 1, С. 7-15.
- _____ (1996b) “Трансформация социа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уда идет Россия?.. Социальн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ып. 3, М.: Аспект Пресс.
- Малева, Т.(2003) *Средние классы в Росс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ые стратегии*, М.: Теис.
- Радаев, В. В. и О. И. Шкаратан(1996) *Социальн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М.: Аспект Пресс.
- Тихонова, Н. Е.(1999) *Факторы социальной стратификации в условиях перехода к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е*, М.: РОССПЭН.
- _____ (2003) *Феномен гордской бедности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М.: Летний сад.
- _____ (2007) *Социальн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Опыт эмпир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М.: Институт социологии РАН.
- _____ (2014) *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России: теории и реальность*, М.: Новый Хронограф.
- _____, Н. М. Давыдова, и И. П. Попова(2004) “Индекс уровня жизни и модель стратификаци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ОЦИС*, № 6, С. 120-130.
- _____ и С. В. Мареева(2009) *Средний класс: теория и реальность*, М.: Альфа-М.

Резюме**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теории и реальность
(Social Structure of Modern Russia: Theories and Reality)****Чой, Ву Ик***

Данная статья ставит целью ознакомить читателей с книгой российского социолога Н. Е. Тихоновой «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России: теории и реальность». Монография объединяет несколько концепций структуры и стратификаци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а также анализирует российскую социальную реальность. По мнению автора, россияне считают, что в реальном российском обществе больше вс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изших слоев. Анализ Индекса уровня жизни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в России примерно 40% обеспеченных людей, в то время как малообеспеченное население составляет 60%. Следуя неомарксистскому подходу, 81% россиян является эксплуатируемым классом, а с позиции неовеберинского подхода 60% россиян не имеют права голос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более 60% россиян пассивны и находятся за чертой бедности. Ресурсный подход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в российском обществе можно выделить класс исполнителей, класс капиталистов и третий класс.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ретьего класса, занимая центральное место в структуре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ак раз и являются реальным средним классом. Можно заключить, что применение ресурсной методологии помогает Н. Е. Тихоновой ярче выявить факторы классовой 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рассмотреть, как развивался каждый класс в отдельности, и как складывались межклассовые связи.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ласс, страта, 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неомарксистский подход, неовеберинский подход, ресурсный подход
(Class, Stratum, Social Structure, Neo-Marxist Approach, Neo-Weberian Approach, Resource Approach)

* HK Professor in the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최 우 익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교수.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사회학 박사. 관심 연구 영역은 러시아의 사회계층, 인구, 이주, 지역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의 정치 관계 연구: 한국적 관점」, 「한국 거주 노어구사 고려인의 사회문화적 적응(1998-2011)」(공저), 「러시아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시장개혁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특성」 등이 있다. 최근 저서로는 『북극의 별 네네츠: 툰드라와 순록, 그리고 석유의 땅』, 『러시아의 심장부: 중앙연방관구』(공저) 등이 있다.

Choi, Wooik

HK Professor in the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 received his Ph.D. in Sociology at Moscow State University. His specialization is Russian Sociology. His areas of interest are social stratification, population, migration, and region in Russia. His recent articles are “Political Connections of Russian Business Elite and Feasibility for Their Investigation: A Look from South Korea”, “Social Cultural Adaptation of Language Koreans in the Republic of Korea (1998-2011)”, and “Socio-economic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of the Central Federal District of Russia in the period of market reforms”. He recently published *The Arctic Star of ‘Nenets’: the Land of Tundra, Reindeer and Oil*, and *Heartland of Russia: Introduction to Russian Central District* (co-author).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5. 9. 30
논문심사일:	2015. 10. 16 ~ 2015. 11. 5
심사완료일:	2015. 11. 10